

H/W 기반 SOHO용

인터넷 보안 솔루션

인터넷 라이브 시큐리티의 용이성 ... 웹 기반 관리 · 확장성은 아쉬워

인터넷 보안업체들이 국내보안시장 선점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 이에 발맞춰 SOHO 보안시장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. 지난달 발표된 '위치가드 SOHO' 인터넷 보안솔루션을 살펴봤다. <편집자>

미국의 경우 지난 98년말 약 63만개에서 올해 말에는 약 1천9백만개의 SOHO가 광대역(Broadband) 인터넷에 접속할 것으로 예상된다. SOHO의 인터넷 사용은 인터넷 이용의 혜택과 더불어 보안과 웹 접속통제의 필요성이 증가된다는 점에 있어 눈여겨 볼만하다. 향후 이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제품들이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다.

인터넷보안장비업체 위치가드테크놀로지도 지난달 3일 마이크 마투치 본사 부사장 등 임원들이 방한, 보안솔루션 및 향후 사업전략을 소개하고, 데이콤인터내셔널과 판매협력 계약을 체결했다.

위치가드는 이날 방화벽, 전자인증, 원

격지 접속, VPN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화벽 장비 '위치가드 SOHO' 인터넷 보안솔루션도 발표했다.

SOHO 보안시장 폭발적 증가

위치가드 SOHO는 DSL, 케이블모뎀, ISDN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SOHO들을 위한 제품. 즉 오십명 정도의 사용자들이 있는 적절하다.

이 제품은 소규모 기업 및 재택근무자들이 자신의 PC를 인터넷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안제품으로, 플러그 인 파이어 박스 보안장비, 방화벽, VPN 등 최신 보안장치를 갖추고 있다. 또한 온라인 라이선스 업그레이드,

무상 기술지원을 포함한 위치가드의 라이브 보안서비스가 상품에 포함되어 함께 제공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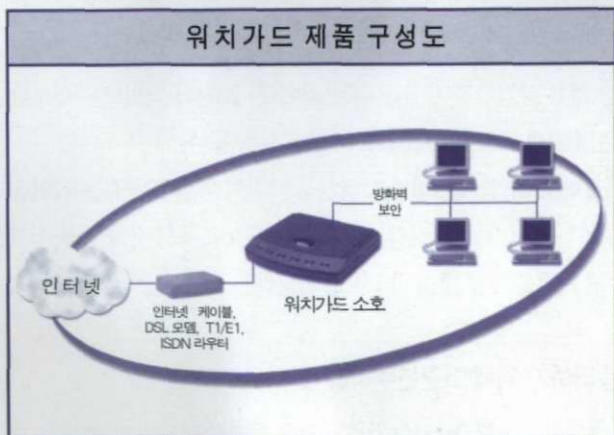
MSS(Managed Security System) 플랫폼의 일환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. 위치가드 SOHO의 장점은 방화벽 뿐만 아니라, 인터넷 공유 (Internet Sharing) 장치 중 최신 보안 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위치가드의 라이브 보안서비스를 포함한다는 것이다.

전자메일 이용 라이브 서비스 제공

라이브 보안서비스는 사용자가 플러그 앤 플레이(Plug and Play) 파이어 박스 SOHO 장비를 준비,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최신 보안 소프트웨어를 전송한다. 라이브 보안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최신정보를 전자메일로 통보,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또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, 해커의 위협에 대한 대안 및 무제한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온라인상에서의 라이선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. 웹기반 트래킹 또한 선택사항으로 제공된다.

위치가드 SOHO는 라우터 등 기존의 체계에 큰 변화를 주지



않으면서도 방화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하드웨어 기반 방화벽의 장점이 돋보인다.

또한 소프트웨어 방화벽의 특징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방화벽의 구축 및 하드웨어 컨트롤의 전문성 등을 손쉽게 대체할 대안으로 등장했다.

특히 라이브 시큐리티의 용이성은 이러한 환경을 반영한 기능으로 꼽히고 있다. 그러나, 소프트웨어 방화벽의 최대 장

점으로 손꼽히는 웹 기반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

못하고 있는 실정. 현재 보안시장의 딜레마인 '관리가 용이한 보안', '전문성을 갖춘 철저한 보안'이라는 측면에서 위치가드는 전자를 우선시 한 것으로 보인다.

윈도우 기반에서만 사용 가능

이 제품은 현재까지는 윈도우 기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확장성의 문제도 노출하고 있다. 초기 리눅스 기반으로 출발했던 위치가드는 압도적 다수의 사용 환경이라는 시장성을 반영한 듯 현재는 윈도우 기반 제품들만을 출시하고 있다. 이 회사 관계자는 "향후에는 이들 운영체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품개발을 할 예정이다"라고 밝혔다.

위치가드측은 한국내 25만개 웹사이트가 현재 해킹 가능성에 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.

지난 96년 설립된 위치가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규모의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. 인터넷 보안을 위한 라이브 보안장치 및 가상사설망(VPN)서비스 관련장비, 중앙보안관리시스템 등을 개발 판매해왔으며, 지난해 총매출은 전년대비 81% 성장한 2억6백만 달러에 달했다. 